

# 동절기동안 ‘에너지콜센터’ 가동된다

##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감액, 공급중단도 유예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콜센터’를 구축하고 동절기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산자부 김영주 장관은 29일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에너지재단,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은 산자부안에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를 설치하고 내년 3월말까지 전기와 가스, 연탄, 지역난방 등 분야별로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콜센터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기간내 에너지 공급 애로나 안전 관련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에너지콜센터는 지난해에도 총 481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됐고 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6.5%에 해당하는 272건을, 보통이라는 의견은 41.8%에 달하는 201건을 기록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에너지공기업들도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한전은 장애인이나 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동절기 전기요금을 20% 할인해주고 혹한기 동안에는 전기 제한 공급을 유예한다. 도시가스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내년 5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체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분납도 허용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재래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가스 호스 교체 등 LPG 관련 시설의 무료 개선 사업을 벌인다. 또 이 기간동안 가스사고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열 기본 요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에너지재단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소년소녀 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1개월분에 해당되는 긴급 에너지를 지원한다.

동절기 에너지 수급 안정 시스템도 가동된다.

가스공사는 원전 가동 중지나 이상 한파 등의 불시상황에 대비해 알제리와 나이지리아 등 천연가스 공급선의 추가 공급 가능 물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석유공사는 난방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비축유 출하 태세를 위한 시설을 점검하고 정유사 등과 협조해 부족물량 긴급대여 지원 체제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